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즉각적인 구원

성경: 누가복음 8장 41-48절

Tag:

41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2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3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막5:26)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막5:28-29)

4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이로다 하신대

47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눅8:41-48)

오늘 말씀의 요지는 정숙한 품행을 지닌 한 여인, 정확한 믿음을 소

유하고 모험심이 있고, 대범한 여인의 ‘즉각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오래도록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다. 이 병에는 대단히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의술로는 난치병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이 병은 대개의 경우 호르몬 이상반응으로 진단된다.(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상반응) 초기발병의 근원이 있었겠지만, 치료되는 과정에서 종교적 죄의식, 여인으로서의 과민성과 수치심, 경제적 압박, 불임에 대한 저주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병을 고질화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많은 의사에게 오래도록 고통 당하였고(마가의 기술, 의사였던 누가는 이 말을 생략함.), 치료비도 상당해서 재산을 거의 소진한 상태였다. 아마도 그로 인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기에 노년이 몹시 걱정되는 심히 곤란한 지경이었을 것이다.

통각에 대한 이해가 치유에 도움이 됨. 학자들이 밝혀낸 통각의 메커니즘.

인간 감각의 종류;

I. 특수감각 (special sensation)

1. 시각 2. 후각 3. 미각 4. 청각 5. 평형각

II. 체성감각 (somatic sensation)

A. 표면감각 (피부, 점막)

1. 촉각 2. 압각 3. 온각 4. 냉각 5. 통각

B. 심부감각 (근, 건, 관절에 의한 감각)

III. 내장감각 (visceral sensation)

1. 장기감각 2. 내장통각

감각은 반복되면 뇌에서 무시하는데, 통증을 느끼게 하는 통각은 반복되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역치가 줄어들어도 증폭되도록 설계되었다.(만성통증) 그래서 뇌는 비상수단을 사용, 엔돌핀을 분비해

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주지만, 계속된 엔돌핀 분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지속적인 엔돌핀 분비는 되지 않는다.

통각이 이렇게 특수한 메카니즘을 가진 이유는 통증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통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고, 빨리 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한다. 통증을 오래도록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부분의 통증은 자연치유 되면서 사라지지만, 불행한 경우 만성통증으로 넘어갈 경우가 있는데, 이는 뇌세포가 통증 자체를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통각 신호가 증폭된 채 기억하고 있어서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기도 한다.

심지어 이런 만성적으로 증폭된 통각기억이 잘못된 미신이나 기억과 함께 뇌세포에 기억되었을 경우 의사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겨 정신신경적 치료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거미가 코속에 들어가 물어뜯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통증자체가 만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원래의 통증 부위도 완치 되어야 하지만, 만성화 된 뇌세포도 새로운 기억으로 리셋 되어야 한다.

신경세포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뇌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뇌세포는 감각에 의해서 활성화 되고, 생각에 의해서 활성화 되고, 믿음에 의해서 습관도 바뀐다. 가치관과 믿음은 나의 습관을 바꾸고, 바뀐 나의 습관은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몸과 건강도 바꾼다.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질병이라(당시 이 질병은 부정하다 하여 혐오의 대상이었음) 여인이 예수님과 대면한다거나, 몸에 손을 댄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을 것임.

그러나 낮고자 하는 절체절명의 갈망이 있었고, 옷자락만 만지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나올 것이라

는 생각과 확신도 있었다.

사람들이 이리 저리 밀치고 밀리는 가운데 겨우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게 되었다. 아마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져보거나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것 같지는 않다. 설혹 그렇더라도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던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예수님의 앞과 뒷편은 항상 제자들이 호위하듯이 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여인은 제자들의 틈 속에서 가까스로 찬스를 잡아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의 몸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흐르던 피가 멈춘 것이다. 아프던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무엇이 잘못되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시다. 진짜 의사. 무엇이 원인이며, 어떻게 해야 치유되시는 지 아시며, 가장 정확하게 부작용 없이, 기다림 없이, 비용도 없이, 순수한 사랑과 희생으로, 마치 뒷에 걸린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은 즉각적인 통증 치료, 급속도로 빠른 회복, 원인의 제거, 악한 영의 퇴출, 거짓된 정보의 진리로의 교체-뇌신경세포의 재배열-깨달음을 통한 치유, 만성통증을 일으키는 증폭된 통각의 소멸.

특히 무엇보다 성령께서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

활력이 질병을 고친다. 하수도가 막히면 뜯어야만 하듯.

일단 생리현상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한번 정상화가 되면 일상이 회복된다.

질병은 일종의 정체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침이나, 충격요법, 자극, 마사지, 약물치료, 안수, 찜질 등이 이런 정체현상을 풀어주고 해소하

는 역할을 한다.

또는 믿음이 있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효과적이다. 말씀의 수용 만으로 뇌세포가 활성화 되고, 거것이 소멸되면서 정상적인 사고 기능과 호르몬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행동의 변화는 막혔던 신체기능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불은 직접적으로 신체의 활력을 증진시켜준다. 멈추어버린 엔진을 강제로 돌려서 정상작동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즉각치유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여인이 나에게 손을 댔고, 나음을 입었구나, 아이로의 딸이 급하니 빨리 가야겠다 했다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는 묻혔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단순히 신체적인 질병만이 아닌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질병도 함께 있었으며, 여러 의사들에게서 얻은 잘못된 의학상식 또한 한몫 거들여,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성화 되어있었다. 또, 근본적으로 구원과 관계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여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치밀하고 성실한 치유에 관한 태도를 전해 들으면서 진정한 의사는 예수님이라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의학이 발달했어도, 즉각적인 치유, 원인치유, 구원치유는 오직 예수님의 영역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구원치유를 통해서 지속되어야 한다. 오늘도 구원치유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2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26절

Tag:

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24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딤후2:20-26)